

# 장석웅 교육감-전남도의회 '공방'

### 우승희 교육위원장 "업무처리 미숙하고 불통"

### 장 교육감 "도정질문서 이런 질책 당하니 참담"

'소통 부족'과 '발목잡기'로 사 사건건 대립해 온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과 전남도의회 대립이 점입 가경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인 우승희 의원은 지난 달 26일 제33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새천년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노출된 소통부족 행정을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우 의원은 "직선 3기 교육감 체제 이후 전남도교육청의 업무처리 등이 너무 미숙하고 불통인 교육행정이었다"며 "교육위원들은 전남교육을 아끼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전남교육을 이야기하고 같이 미래를 열어가고 노력을 했지만, 교육청은 도의회가 발목잡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것에 많이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 의결기관으로서의 도의회를 협력과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런 교육청의 분위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면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언제까지 도의회에 끌려갈 수 없다" 이례적 불만 노출

우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교육청 내부에서는 상당히 격양된 반응이 나왔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지적보다는 감정적인 비판을 통한 장 교육감 '흠집내기'라는 시각이 팽배했다. 결국 장 교육감은 지난 달 3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례적으

로 불편한 심정을 표출했다. 그는 "도정 질문이 있는 후 교육청뿐 아니라, 전남교육청 소속 구성원들의 상처받은 마음,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위로하고 다시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도민이 지켜보는 의회의 도정질문에서 이런 질책을 당하니, 참담한 마음이 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위와 같은 지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구성원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 전남교육 발전과 혁신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청 직원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교육청이 도민들의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연속 최상위를 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4개월 연속 1위 자신감 표출

취임 이후 그동안 도의회의 각종 지적에 줄곧 낮은 자세로 임하던 장 교육감이 이번처럼 강한 유감을 나타낸 것은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1위에 따른 자신감 표출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지난 달 10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민선3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2019년 8월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평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전국위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격렬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왼쪽)과 우승희 도의회 교육위원장.

원장을 지낸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교육행정 수장이 되면서 그동안 배운다는 자세로 행정을 이끌어 왔다.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도 그동안 수고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청사 입구에서 직원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권력에 취하지 않고, 듣기 좋은 소리에 취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고, 신발끈을 고쳐 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출마에서부터 선거운동, 이후 13개월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주변에 전교조 인사들이 포진하고 정책에 관여하면서 '전교조에 끌려 다닌다'는 꼬리표가 붙었다.

또한 이들 인사들이 교육청 조직의 전면에 배치되면서 도의회와의 소통부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표출된 교육위원들의 불만도 최근 알려진 전남과학교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사전 설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 전교조에 둘러싸인 교육감의 소통부족은 당연?

도교육청은 당초 한전공대 설립 부지내에 IT와 에너지 관련 영재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교육부 등의 난색으로 이 정책을 폐지했다.

그 대안으로 인근의 전남과학고등학교를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에너지와 IT 계열 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 변경에 대해 교육위원들은 사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언질을 받지 못했으며, 언론을 통해 내용을 파악했다고 불만이 터져 나왔다.

또한 장 교육감 취임 이후 조직 개편 추진과 교육장 주민추천임용제, 교육참여위원회 설립 등 주요 정책에서 충분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도의회와 계속 마찰을 빚어왔다.

전남 교육계 한 인사는 "장 교육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소통부족은 여러 번 지적돼 왔다"며 "교육청 내부에서도 중요 부서를 맡고 있는 전교조 출신 인사들의 독선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교육감과 도의원들 모두 선출직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만큼,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전남교육을 위한 동반자라는 인식에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1

## 철길서 화물차, 열차와 충돌...운전자 대피

1일 오전 7시10분쯤 화순 이양면 한 철길 건널목에서 무궁화 열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철길 밖으로 튕겨나가 반파됐다. 다행히 운전자 A씨(48)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 등은 A씨 차가 철길에서 시동이 꺼지며 멈춰섰고 광주에서 순천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멈춰선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차가 멈추자 즉시 대피해 다른 차들이 철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신호를 보내는 등 상황정리를 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를 발견한 열차 기관사가 급히 제동을 걸었지만 열차가 밀리면서 화물차를 세게 충격했다.

경찰은 "철길에 들어서자 갑자기 차 시동이 꺼졌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고흥 항구서 실족 바다에 빠진 70대 구조

술을 마시고 항·포구를 건다 실족해 바다에 빠진 70대 남성이 해경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1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7시9분쯤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축정항 북쪽 안벽 끝 부근 바다에 A씨(71)가 빠져 있다는 친구의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안벽 체인을 붙잡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신고접수 4분여만에 A씨를 구조했다.

친구 2명과 함께 고흥 나로도 일원으로 여행을 온 A씨는 식사 중 술을 마시고 바람을 쐬기 위해 친구와 함께 항포구를 건다가 실족해 바다에 빠졌으며 건강상 이상이 없어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소 두달만에' 상습 무전취식 50대 붙잡혀

점주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달아나는 등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출소 2달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로 A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8일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술집에서 23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초쯤 광주 서구 한 바에서 160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신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양주를 마신 후 돈을 지불하라는 점주의 말에 "차용증을 써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차용증을 작성한 후 점주를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점주가 A씨에게 약속대로 돈을 달라며 연락을 하자 전화를 피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가 수십여명에 달했고 무전취식으로만 수차례 징역살이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6월 말 사기 혐의로 수감생활을 마친 후 만기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소 후에도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100여만원까지 수십차례 술을 마신 후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 함평서 1톤트럭 트랙터 추돌 노인 3명 사상

지난 달 30일 오후 7시5분쯤 함평읍 함평읍 편도1차선 국도에서 A씨(36)가 몰던 1톤 트럭이 앞서 가던 B씨(61)의 트랙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탑승중이던 동승자 C씨(69)와 D씨(79)가 숨지고 A씨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 등은 A씨가 가로등이 적은 국도에서 앞서 가던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B씨는 현장을 1시간 가량 벗어났다가 현장 인근으로 돌아와 자신이 트랙터 운전자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갑자기 사고가 나길래 너무 당황해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광주 11%·전남 17% 납부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납부해야 할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각각 11.2%와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18

년 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사학재단이 지난해 납부해야 할 법정 부담금은 총 37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중 654억원만 법인이 전수입으로 부담한 것으로 집계

됐다. 법정 부담금은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몫은 학부모 부담금, 국고 등으로 대신

납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의 경우 185억4884만7000원이 납부됐어야 했지만 11.2%인 20억8092만1000원만 납부됐다.

전남은 144억3848만원의 납부 기준액 중 17%인 24억5153만5000원이 실제로 납부된 상태다.

조 의원은 "법인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